

# 코로나19 극복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 전북도-전북농협, GAP 농산물 중심으로 16일 판매행사 수박·햇양파·팻감자 등 제철농산물·친환경쌀로 구성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와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농촌과 도시의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소비로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판매행사를 안전·안심의 GAP농산물 중심으로 오는 16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특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판로가 막힌 농업인을 돕고, 도민에게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GAP(농산물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32~5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양기관이 함께 마련했

다. 이번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는 6회째로,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GAP·친환경 제철농산물로 상품을 구성했다.

판매상품은 수박, 팻감자, 햇양파, 파프리카, 대추방울토마토 5종의 GAP 농산물(5,000세트, 13.2톤)과 친환경 쌀(1,000포, 5톤)이다. GAP농산물은 32%~50% 할인 판매하며, 친환경쌀은 50% 할인에 판매한다.

또한, 많은 도민들이 찾으면서 빚어진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모범운전자와 함께 30여명이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당초 개장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며, 상품 품질 발생시 '품질상품 피켓' 순회로 도정집업점에 대기자에게 사전 정보 제공 등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행사장은 도청 복문(마전들로, 대한방직 사잇길 천변쪽 입구)으로 진입해야 하고, 현장에서 현금과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대면판매(도보 이동)는 진행되지 않는다.

더불어,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날(5. 10.)을 기념해 드라이

브 스루 농산물 구매자에게 잠미꽃 800송이와 칼라코에 화분 500개를 증정하는 꽃나눔 이벤트도 같이 진행한다. 전북도는 그간 5차례로 진행된 농축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통해 완판 행렬을 이어가는 등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총 판매액은 1억 8천만원이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물품목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각급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위축된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판매전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서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직거래장터 운영, 홈쇼핑, 온라인 쇼핑물 기획전 등 다양한 농산물 소비촉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김윤상 기자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 100여명은 14일 정부에서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 작은 보탬·실천, 코로나19 극복 도움되길

### 경진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기부행렬 동참... 965만원 기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 임직원 100여명은 14일 정부에서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대통령과 정부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기부가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참여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진원 역시 조지훈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해 국난 극복에 힘을 실었다.

뿐만 아니라, 경진원 임직원들은 재

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19 특별기금에 기부금을 기탁하는 등 재난지원금 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기금을 통해 총 965만원을 기부했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경진원 임직원들의 작은 보탬과 실천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가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진원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도민들의 경제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예비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4대보험

###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교육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8천여 명에게 교육해 왔다.

올해는 교육 대상자를 확대해 창업진흥원에서 진행되는 '예비창업 패키지 사전교육'에 참여한 약 1700명을 대상으로 5월 11일부터 6월 말까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4대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이용한 민원 신고 방법과 기본적인 4대보험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김용국 연금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이 4대보험 제도를 잘 이해하고 각종 신고를 간편하게 해결함으로써 실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북전주농협, 경제사업장 저운참고 준공식 열어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지난 13일 성덕 경제사업장에서 저운참고 준공식을 열었다.

그동안 북전주농협은 관내 주 재배 작목인 배를 비롯한 복숭아, 딸기 등의 공동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저운참고 부족으로 인한 생산물량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한 농가수취가격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날 저운참고 준공은 북전주농협이 2019년도 저운유동체계구축사업(저운참고 증축) 대상자로 선정된 데에 따른 성과물이다.

저운참고 증축은 전주시 덕진구 원동 570번지의 2필지의 경제사업장 27,574㎡ 부지 내에 총공사비 약 10억 원을 투자해 675㎡의 저운참고를 증축했으며, 50평짜리 저운참고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준공식은 전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전국적인 사회적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외부인사 초청 없이 북전주농협 임직원과 공신 출하회장만 참석해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의 후원으로 JB문화공간에서 운영하는 회원제 아카데미 '제1기 JB문화살롱'이 지난 13일 개강식을 갖고 2020년 출발을 알렸다.

## 전은 '제1기 JB문화살롱' 올해 첫 출발

### 개강식 열고 프로그램 소개 세시봉·윤형주 축하무대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의 후원으로 JB문화공간에서 운영하는 회원제 아카데미 '제1기 JB문화살롱'이 지난 13일 개강식을 갖고 2020년 출발을 알렸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JB문화공간은 전북은행이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 설립한 문화예술나눔 실천공간이다.

전북은행은 카드회원인 문화공간 회원을 대상으로 공연과 강좌 등 수준 높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라운지와 소회의실, 다목적홀, 음악감상실, 루프탑 등

공간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관하는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의 1부에서는 전라북도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과 전북은행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을 축하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올해 프로그램 소개 등으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70년대 포크음악의 리더그룹 세시봉과 트윈폴리오의 가수 윤형주의 축하무대가 이어졌다.

'JB문화살롱'은 오는 진행되는 재즈클래스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 뮤지컬과 클래식음악, 미술분야 등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들과 함께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더불어 공연과 전시, 연주회 등 예술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성보다는 한 분야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는 집중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오픈 프로그램으로 '생활 속 인문학'을 표방하는 JB강연과 토크타 가수 임지훈의 7080 콘서트, 스탠딩커미디의 대부 전우성의 개그 쇼트코, 뮤지컬감독 박갈린의 '뮤지컬 A to Z, 제작부터 공연까지' 등 'JB문화공연'은 아티스트와 관객이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작은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는 생생한 감동을 직접 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약용작물로 봄철 목은 변비 다스리세요'

### 농진청, 참당귀·황기·생지황 추천... 증상 완화에 도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4일 봄철 이후 증가하는 변비 증상을 완화하는 약용작물로 참당귀와 황기, 생지황을 추천했다.

봄에는 목속 잔액이 많아 배변이 힘들어지는데, 이럴 때 약용작물을 활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참당귀와 황기는 공통적으로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다. 참당귀·황기차를 꾸준히 마시면 오래 묵은 변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당귀는 메마른 대장에 잔액을 보충해 촉촉하게 하고, 황기는 몸에 기운을 더해 배변활동을 원활히 한다. 대장(大腸)의 잔액이 줄어들고 배변할 힘이 부족해서 생긴 변비에도 효과적이다. 참당귀에는 데카신과 데카시놀, 황기에는 이소플라보노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다.

참당귀와 황기는 배합 비율에 따라 향산화 효과, 항염 효과, 조절작용 등 각각 쓸 때보다 함께 사용할 때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찬 성질의 지황은 달면서도 약간 쓴

맛이 난다.

지황은 목속 열을 빠르게 내려주고 어혈을 풀어주며 체액을 보충하는 효능이 있다. 생지황(생뿌리)과 건조한 건지황으로 구분된다. 변이 단단하고 물기가 적으면서 색이 어두운 열성 변비에는 생지황이 좋다.

특히 스트레스로 열이 나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거나 몸이 건조해 생기는 현대인의 변비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생지황의 주요성분은 카탈폴, 스타키오스 등이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생지황은 항산화, 항염, 항균, 항종양, 심혈관계 질환 개선 효과는 물론, 혈당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도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휘 인삼특작이용팀장은 "변비 증상을 완화하는 보조약으로 약용작물을 추천하며, 증상에 따라 섭취 방법이나 섭취량 조절은 전문가와 상의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간헐 전북지부서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결제 가능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배기용, 이하 간헐 전북지부)는 지난 13일부터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의 검진 비용 결제가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간헐 전북지부 관계자는 "질병예방을 위해서 개인위생과 함께 금연, 금주,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꾸준한 운동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에게 건강위험요소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긴급재난지원 사업이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종합검진, 맞춤형검진, 채용신체검사,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 취약계층 환원검진, 간헐사망어머니봉사단 정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북 중소기업동조합, 지역경제 활력회복 사회공헌 전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14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두원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 중소기업회장, 전북협동조합이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하고 3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사람나눔 활동은 전북지역의 39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난 3월부터 전체 조합원사들과 함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돕고 지역사회 나눔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회복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전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정목)이 친환경농산물 200

만원 구입하고 전북기공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병모)이 친환경농산물 300만원을 구입해 소외된 이웃에 전달하는 등 각 조합이 상황에 맞게 사회공헌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에 각 조합이 십시일반으로 기부금을 모아 좀 더 많은 도내농가와 불우이웃에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사람 나눔 활동에 앞장서 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사장들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를 통한 마음과 정성이 지역경제에 희망의 불씨가 되어 난국을 헤쳐나가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벤처기업 지원실적 크게 늘어

### 전북조달청, 도내 소재 기관 벤처나라 구매액 14여억원 올 한해 목표 40억원의 34.8%... 전국 평균 크게 웃돌아

전북지방조달청(청장 박수천)의 혁신조달기업 지원 활동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4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전북 소재 기관의 벤처나라 구매액은 약 14억원으로 올 한 해 전북지방조달청이 목표로 하고 있는 40억원의 34.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18.7%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목표대비 달성률은 전체 11개 지방청 중 최고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연초부터 전담추진반을 조직해 탄소관련 지원 대상기업 직접 발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 유도 등을 펼쳐로 수요기관과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은 기업의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수요기관이 사용하게 하고 테스트 결과를 피드백하여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담추진반을 이끌고 있는 오은주 반장은 "수요기관 맞춤형 홍보와 현장 중심의 제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 것이 효과가 나타났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수천 청장은 "벤처나라 실적 추이를 분석을 해보면 올 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단순히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완주삼봉A-1BL 국민임대·행복주택 추가모집

### 내전북본부, 국민임대29형 119호, 행복주택 356호 공급

내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가 완주삼봉A-1BL 국민임대29형 119호와 행복주택 356호를 추가 공급한다.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완주삼봉A-1BL은 행복주택 545세대, 국민임대 372세대, 영구임대 175세대로 구성된 총 1092세대의 혼합단지다. 지상 11~25층의 아파트 4개동과 상가동, 사회적 기업·지역편의시설·사회복지관·경로당·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로 이뤄졌다.

이번 추가 공급은 입주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직접 동호를 선정하는 동호지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의 소득 및 자산조건이 130%까지 완화됐다. 또한 신혼부부 계층의 혼인기간 기준도 기본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9세 이하로 자격 완화됐다.

행복주택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국민임대29형은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접수 시작일 10시부터 4시까지 동호지정 완료 후, 계약금을 입금한 뒤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